

# 내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며 안보의 주체

테러든 전쟁이든 내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고 안보의 주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.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에는 나와 내 이웃의 생명마저 해치는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.



## 테러 참사 후 미국민들이 보여준 것들

- 성숙한 시민 의식
  - 차량 통제, 도로 통제, 상가조기 철수, 학교 폐쇄 등 비상 사태 선언에 따른 당국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따랐다.
  - 사고 지역의 경찰 저지선을 철저히 준수했다. 기자나 희생자 가족도 예외가 없었고, 추모자들도 저지선 밖에서 행동했다.
- 공포와 슬픔을 '나라 사랑' 으로 승화
  - 소방차, 구조차, 경찰차가 지나갈 때 환호와 박수, 음료수 제공 등으로 격려하였다.
  - 군모병소에 입대 문의가 평소의 4배 정도로 쇄도했다.
  - 성조기 판매가 20배 정도 급증하였다.(116,000여개)
  -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수십, 수백명씩 모여 촛불 행진 등 추모 행사가 줄을 이었다.
- 구조 활동 지원 및 기부 활동
  - 응급 약품과 물품을 구호기관에 기탁, 단시간 내 필요량이 충족되었다.
  - 위문 및 구조 활동 지원 성금이 쇄도하였다.(10월 18일까지 10억\$)
  - 자원 봉사자 지원이 쇄도하였다.
    - 민간구조 전문가는 사고 지점에서 자원 봉사
    - 시신 안치소에서도 실종 가족 위로 및 시신 확인 작업
    - 의사와 간호사들의 자원 봉사 지원이 7,000여명
- 자발적이고 전국적인 헌혈 운동
  - 미국 전역의 각 헌혈센터에 수백 미터씩 헌혈 행렬이 이어져 2~3 시간씩 대기하였다.
  - 12일 하루 20만명이 헌혈하였으며, 9월 17일까지 150만명이 헌혈하였다.